신한은행-무역보험공사, 수출 소상공인 지원 확대

신한은행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 소상공인 특화 다이렉트 보증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승목 신한은행 고객솔루션그룹장(오른쪽)과 유승희 한국무역보험공사 AI·디지털사업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종근당고촌재단, 연간 30억 규모 장학사업 추진

종근당고촌재단은 지난달 27일 서울 충정로 종근당 본사에서 '2026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종근당고촌재단은 올해 신규 선발된 110명을 포함한 국내·외 장학생 403명에게 졸업 시까지 장학금과 무상기숙사를 지원하고, 학술사업 등을 포함한 공익사업 전반에 연간 약 30억원 규모의 장학사업을 진행한다. /종근당고촌재단

콜마비앤에이치-애터미, 대한배드민턴협회 후원

콜마비앤에이치와 애터미는 지난 2월 24일 충북 진천에 위치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와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진천국가대표종합훈련원에서 윤용순 애터미 대표(왼쪽부터), 김동문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이승화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3자 후원 협약 체결을 기념하며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

롯데웰푸드, '베스트 육가공품 선발대회' 2관왕

롯데웰푸드가 한국육가공협회 주관 '2025 베스트 육가공품 선발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롯데웰푸드는 대표 프리미엄 소시지 브랜드 '에센뽀득'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했고, 의성마늘햄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안성규 롯데웰푸드 육가공마케팅팀 매니저(가장 왼쪽)가 시상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롯데웰푸드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과학 인재 장학증서 수여

재단법인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은 서울 마포구 세아타워에서 제34기 '미래 과학기술 인재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총 70명의 장학생을 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재단은 총 8억4000만원의 장학금을 마련해 장학생 1인당 향후 2년 동안 매 학기 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현대차그룹, '집으로 가는 더 안전한 길' 영상 공개

화재현장 무인소방로봇 모습 담아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술개발"

현대자동차그룹이 피지컬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안전 최우선'이라는 기업의 철학을 담은 영상을 선보였다.

현대차그룹은 소방청과 개발한 무인소방로봇 기술을 소개하는 영상 'A Safer Way Home'(집으로 가는 더 안전한 길)을 3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기아가 현대로템, 현대모비스, 소방청과 협업해 제작 무인소방로봇은 붕괴 위험이나 고온, 폭발, 연무, 유독가스 등으로 사람이 진입하기 어려운 고위험 재난 현장에 먼저 투입돼 화재 진압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차세대 화재 대응 솔루션이다.

무인소방로봇을 실제 운용하고, 영상속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중앙 119 구조본부 임팔순 구조대장(왼쪽부터), 전준영 주임, 황정민 반장. /현대차그룹

영상에는 대형 화재 현장에 무인소방로봇이 출동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방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모습이 담겼다. 무인소방로봇을 운용하는 중앙 119구조본부 임팔순 구조대장을 비롯한 실제 소방관들이 출연하고 내레이션에도 직접 참여했다.

영상 속 무인소방로봇은 첨단 자율주행보조 시스템, 인공지능(AI) 시야개선 카메라, 고압 축광 릴호스, 6X6 인휠모터 시스템 등 피지컬 AI 기술을 활용한 임무 수행을 보여준다. 1월 30일 충북 음성 공장 화재에 무인소방로봇이 처음으로 현장에 투입된 모습도 담겼다.

현대차그룹은 무인소방로봇은 단순한 화재 진압 장비를 넘어 재난 현장을 데이터화하는 '데이터 확보 플랫폼'으로서의 핵심 가치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소방청·국립소방연구원과 가장 효율적인 진압 방식을 계산해 알아서 불을 끄는 진정한 의미의 무인소방로봇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무인소방로봇은 위험한 현장에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 소방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술"이라며 "우리 사회의 구성원과 안전을 지키는 제복 입은 영웅들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되기 위해 기술 개발과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정몽구 재단, 임팩트 스타트업 육성

아태지역 사회·환경 문제해결 목표
내달 3일까지 모집… 20개팀 선발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가 공동주최하고 임팩트스퀘어가 주관하는 '글로벌 임팩트 프러너'가 아시아태평양 임팩트 스타트업 선발 및 육성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글로벌 임팩트 프러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사회·환경 문제해결을 목표로 지속가능한발전목표에 기여하는 솔루션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글로벌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한국기업을 포함한 아태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 중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사회문제 해결 솔루션을 가지고 있으며 아이디어 단계를 넘은 검증 가능한 모델(프로토타입·파일럿·PoC 중 하나) 보유한 법인 설립 5년 미만의 초기 기업이다.

글로벌 임팩트 프러너는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 심사를 거쳐 20개 팀이 선발되며, 본격적인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심사에 걸쳐 선발된 20개 스타트업 기업가에게는 아태지역 전문가 멘토링, 임팩트 측정 및 IR코칭, 글로벌 투자자 및 동료 스타트업과의 교류 등이 제공된다.

정무성 현대차 정몽구 재단 이사장은 "재단은 2012년부터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국내 임팩트 기업가 육성과 임팩트 생태계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며 "글로벌 임팩트 기업가를 양성하여 전지구적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UNDP, 임팩트스퀘어와 힘을 모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카카오,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업

카카오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카카오톡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를 확대한다.

카카오는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카카오톡 기반 모바일 전자문서 제공 범위를 넓힌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송하는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 영유아 검진표, 대사증후군 안내문,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안내문, 지역가입자 자격변동 안내문 등 300종 이상의 각종 안내문과 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이용자는 별도의 앱 설치나 추가 회원가입 없이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문서를 수신한다. 문서 열람 시에는 카카오 인증서를 활용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농심-네슬레,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커피·제과 등 오프라인 유통 협력

농심이 네슬레코리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3월부터 네슬레의 커피와 제과 카테고리 약 150개 제품의 국내 오프라인 유통을 시작한다.

농심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자사가 보유한 국내 최고 수준의 영업망과 네슬레의 브랜드 파워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심이 맡게 될 커피 카테고리는 네슬레의 핵심 사업군 중 하나다. 농심은 홈 카페 및 캡슐커피 성장 추세에 발맞춰,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진 네슬레 제품을 주요 채널에 공급하며 매출을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심은 네슬레 제과 브랜드 '킷캣' 과 호텔, 레스토랑 등 푸드 서비스 채널 시장 확대를 위해 네슬레의 B2B 브랜드인 '매기(Maggi)', '부이토니(Buitoni)' 제품도 판매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한화그룹, 사이언스챌린지 참가팀 모집

총 상금 2억… 주제 '세이빙 더 어스'

한화그룹은 '지속 가능한 내일'을 만들어갈 과학 영재 발굴을 위해 '한화사이언스챌린지(Hanwha Science Challenge) 2026'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2026년 대회 주제는 '세이빙 더 어스(Saving the Earth)'다. 참가자들은 과학적 접근을 통해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안하게 된다. 고등학생 2명과 지도교사 1명이 한 팀을 구성해 지원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이후 두 차례 예선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할 20개 팀을 선발한다.

총 상금 규모는 2억원으로 대상 1팀에 4000만원, 금상 2팀에 각 2000만원, 은상 2팀에 각 1000만원을 수여하는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장학금과 부상이 마련됐다.

/원관희 기자 wkh@

LG유니참, 위생용품 누적 1000만장 기부

2013년부터 '쉐어 패드' 활동

LG유니참은 위생용품 나눔 캠페인 '쉐어 패드'를 통한 누적 기부 물량이 지난해 말 기준 1000만 장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2월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와 협력해 경기, 경북, 부산 지역에 생리대 21만 장과 기저귀 4만 장 등 총 25만 장의 위생용품을 전달했다.

LG유니참은 2013년부터 13년째 '쉐어 패드'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지역사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생리대, 기저귀 등 필수 위생용품을 지원해 도움이 필요한 여성, 청소년, 유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LG유니참은 올해는 약 170만 장의 위생용품을 기부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오는 2030년까지 연간 300만 장 규모로 기부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인사

◆**제일약품** 〈임원 승진〉 △임상의학본부장 이사 조민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국장 승진〉 △의공학팀장 조원형
◆**광주매일신문** 〈승진〉 △이사·편집국장 박은성

부음

▲변천수씨 별세, 김태섭씨 부인상, 김원기(하이닉스 NAND FA)씨·김현씨 부친상, 김현주(하이닉스 소재전략)씨 시부상, 이종훈(SBS 보도본부 네트워크팀 부장)씨 장인상=3일,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9호실, 발인 5일. 02-3410-3151